



# 잘못 식립된 전치부 Implant의 치축과 위치를 segmental osteotomy로 수정한 증례

김태원\*, 차인호, 배은경, 한동후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전치부 임플란트 식립시에 근원심, 협설, 수직의 3차원적인 적절한 임플란트의 위치가 심미적인 결과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상악 전치부에서 잔준골의 위치를 따라 임플란트 식립시에 임플란트의 장축이 협측으로 기울기 쉬우며 이 경우 협측골이 얇아지게 되어 치은 퇴축이나 임플란트 노출 등의 심미적 complication을 유발하게 된다.

잘못 식립된 임플란트로 인해 나타나는 심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골이식하여 치유를 기다린 후에 재식

립하는 과정을 통상적으로 요하며 수년의 장기적인 기간을 필요로 한다. 이때, segmental osteotomy 방법을 사용하여 임플란트의 치축과 위치를 수정하여 고정함으로써 치료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본 교실에서는 상악 우측 중절치 부위에 치축을 협측으로 기울게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치은 퇴축과 임플란트 노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segmental osteotomy로 임플란트의 치축과 위치를 수정하여 수복 완료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